

## 외상성 횡격막 파열에 대한 임상적 고찰

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유용철, 김응중, 임승평, 이 영

외상성 횡격막 파열은 근래 자동차 수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, 산업의 발달로 인한 산업재해 및 인심의 흉폭화에 따른 자상 등으로 빈발하는 추세에 있다. 또한 이 손상은 대부분 중증의 다른 장기손상을 동반하며 때에 따라 다른 신체장기의 손상에 비해 조기진단이 어려운 때가 있다. 조기진단되면 쉽게 안전하게 교정할 수 있지만 진단이 늦어진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사망할 수도 있다.

충남대학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76년 3월부터 1992년 3월까지 약 16년간 외상성 횡격막 파열을 치험하였으며 이중 의무기록이 확실한 40례를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분포, 외상의 종류, 증상 및 증후, 합병된 손상, 진단 방법, 수상주부터 진단시 까지의 소요시간, 흉강내로 탈장된 장기의 종류, 수술접근 방법, 횡격막 파열의 크기와 부위, 수술후 합병증 및 사망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- 1) 연령분포는 2세부터 76세까지로 20-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녀 비는 남자 30례, 여자 10례로 3:1이었다.
- 2) 외상의 원인은 둔상에 의한 손상 26례(교통사고 20례, 추락사고 4례, 기타 2례)와 관통상에 의한 손상 14례(자상 13례, 총상 1례)였다.
- 3) 둔상에 의한 횡격막 파열 26례중 21례가 수상후 24시간 이내에, 관통상에 의한 14례중 1례를 제외한 13례에서 24시간 이내에 진단이 되었다.
- 4) 수술접근 방법은 개흉술 19례, 개흉 및 개복술 17례, 개복술 4례였다.
- 5) 파열된 부위는 좌측 30례(둔상 20례, 관통상 10례), 우측 10례(둔상 6례, 관통상 4례)였다.
- 6) 외상성 횡격막 탈장은 총 32례에서 발생하였으며, 탈장된 장기는 위장 19례, 대망 17례, 대장 12례, 간장 9례, 비장 7례, 소장 6례, 담낭 1례였다.
- 7) 40례중 3례가 수술중 혹은 수술후 사망하여 사망률은 7.5%였으며, 사망원인은 패혈성 쇼크, 급성 신부전, 허혈성 쇼크 각각 1례였다.

이에 저자들은 외상성 횡격막 파열 환자를 조기진단 및 치료하였으며, 양질의 외과적 처치를 위하여 임상적 분석 및 고찰을 시도하였다.